

전북지역 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 결과

전북 전주 소재 유통업체 총 8,716개 상품 중 소비기한 표시된 상품은 4,054개(46.5%), 제도의 정착 위해 소비자 홍보 확대 필요(41.5%)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1. 조사개요

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전북소비자 인식조사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재,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혼재되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는 혼란스럽다. 식품업체나 유통업체에서도 정확한 소비기한 설정 및 유통 중 냉장보관 시스템 재정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전북지역의 소비자들은 소비기한 표시제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도민 5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 대상 : 전주·익산·군산에 거주하는 전북도민 503명
- 조사 기간 : 2023년 5월 18일(목) ~ 5월 26일(금)
- 조사 방법 : 1:1 대면 설문조사
- 분석 방법 : SPSS 빈도분석, 교차분석

나. 전주지역 유통업체 소비기한 표시현황 실태조사

식품 소비기한 제도시행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시장에 유통 중인 식품의 소비기한-유통기한 표시 현황 파악과 유통판매 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대책안 등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 대상 : 전주 소재 식품판매처 24개소 (대형마트 5, 백화점 1, 중·소형마트 11, 편의점 4, 로컬푸드매장 3)
- 조사 기간 : 2023. 7.10(월) ~ 7.11(화)(2일간)
- 조사 방법 : 소비자전문모니터 현장 조사 및 담당자 인터뷰

2. 조사 결과

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전북소비자 인식조사

□ 오프라인 매장에서 식품 구입시 주 2~3회 구매 응답이 31.8%로 가장 높고, 동네중·소형 슈퍼마켓 이용(298명, 29.7%)을 가장 많이 해

- 1주일에 2~3회 구매한다는 응답이 160명(31.8%) 가장 많았고, 1주일에 1회가 135명(26.8%), 1주일에 4~5회가 76명(15.1%), 1달에 2~3회가 64명(12.7%), 1주일에 6~7회가 24명(4.8%), 1주일에 8회 이상이 17명(3.4%), 1달에 1회가 15명(3.0%), 1달에 1회 미만이 12명(2.4%) 순으로 나타났다.
- 오프라인 식품 구입 장소는 동네중소형 슈퍼마켓이 298명(29.7%)으로 가장 많았고, 대형마트가 290명(28.9%), 로컬푸드 직매장이 136명(13.5%), 전통시장이 97명(9.7%) 순으로 나타났다.

□ 식품 구입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2순위까지)으로 '가격'이 311명(31.0%)으로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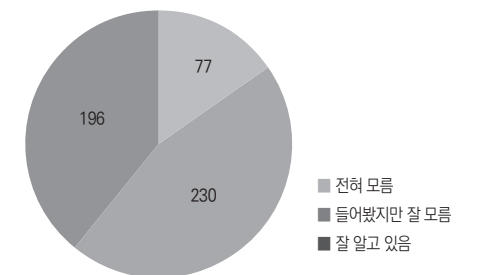
- 가격이 311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생산 일

자(제조일자,유통기한)'가 301명(30.0%), 원산지 197명(19.6%) 순으로 확인되었고, 3순위까지가 전체의 80.6%를 차지하였다.

□ 전북 소비자, 45.7%가 소비기한을 '들어 봤지만 잘 몰라'

- 소비기한을 '들어봤지만 잘 모름'이 230명(45.7%)으로 가장 많았고, 잘 알고 있음이 196명(39.0%), 전혀 모름이 77명(15.3%)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소비기한 정의 이해 여부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좋은 점으로 '유통기한보다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어 편리하다'가 236명(46.9%)로 가장 많았고, '버리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줄어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114명(22.7%), '식품에 표시된 기한의 의미가 정확해서 알기 쉽다' 96명(19.1%), '기한이 늘어 식품 보관이 더 편할 것 같다' 55명(10.9%) 순으로 나타났다.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어 염려되는 점은 '식품 보관기한이 늘어 품질이 저하될 것 같다'가 167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매장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것 같다'가 135명(26.8%), '기한이 늘어 냉장고에 식품을 넣어놓고 잊어버릴

것 같다' 122명(24.3%), '우려되는 점이 없다' 75명(14.9%), 기타가 4명(0.8%)으로 나타났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냉장 및 냉동시스템 운영'을 꼽아

-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냉장 및 냉동시스템 운영' 173명(34.4%)으로 가장 많았고, '해당 식품의 정확한 소비기한 설정'이 158명(31.4%), '유통 및 보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120명(23.9%), '소비기한을 정확히 지켜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태도'가 51명(10.1%), 기타 1명(0.2%)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기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우선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는 '홍보와 교육'이 41.5% 나타나

- 개방형 질문에 142명이 응답하였으며, 홍보와 교육이 59명(41.5%)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36명(25.4%), 유통업자의 철저한 유통관리 시스템 구축 24명(16.9%), 정확한 소비기한의 설정과 표시 20명(14.1%), 기타 3명(2.1%)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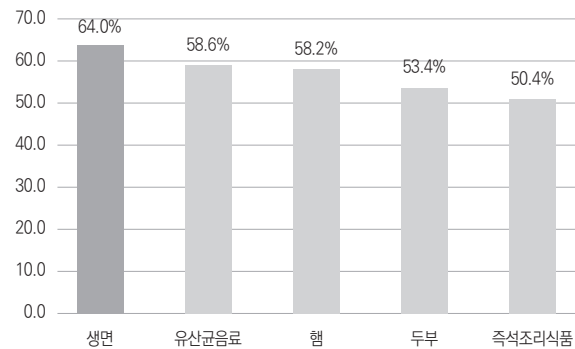
나. 전주시역 유통업체 소비기한 표시현황 실태조사

□ 10개 식품 유형 총 8,716개 상품을 조사하였으며 소비기한으로 표시된 상품은 4,054개(46.5%), 유통기한 표시 상품은 4,662개(53.5%)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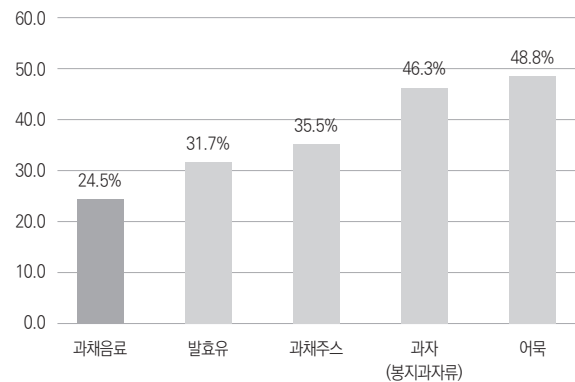
- 10개 식품 유형 중 소비기한 표시 비중이 높은 식품 유형은 생면이 64.0%이었으며, 유산균음료가 58.6%, 햄이 58.2%, 두부 53.4%, 즉석조리식

품 50.4% 순이었다.

【그림2 - 소비기한 표시 비중이 높은 식품유형 5순위】



【그림3 - 소비기한 표시 비중이 낮은 식품유형 5순위】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것을 잘 알고 있다 79.2%로 나타나

- 소비기한 표시제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9명(79.2%), '들어봤지만 잘 모름'이 5명(20.8%)으로 나타났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이 효과적(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감소, 탄소배출 저감 효과 등)이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응답이 각각 8명(33.3%)으로 가장 많아, '보통이다'가 6명(25%), '매우 그렇지 않다'가 2명(8.3%) 순으로 나타났다.

□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17명(70.8%), '교육받은 적이 있다'가 7명(29.2%)으로 나타났다.

□ 식품별 보존·유통온도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 냉동실은 22곳(91.7%)은 적정온도(-18℃ 이하)로 확인되었지만 2곳(8.3%)은 적정 온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냉장실의 경우 24곳 모두 적정 온도(0~10℃)로 관리되고 있었다.

□ 냉장실의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커버가 설치되어있는 곳은 10곳으로 확인돼

- 유리문과 투명스크린 형태의 덮개가 모두 설치된 곳은 2곳이었고, 유리문이 설치된 곳은 7곳, 투명스크린 설치는 1곳으로 확인되었다.

Ⅲ. 결론 및 제언

첫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

- 소비자설문조사를 통해 소비기한에 대해 '들어봤지만 잘 모름'과 '전혀 모름'이 61.0%, 판매처 또한 '들어봤지만 잘 모름'이 20.8%이었다.
- 실태조사에서 인터뷰 담당자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를 꼽았다.
- 정부와 식품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냉장 및 냉동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감독에 힘써야 한다.

- 소비자는 설문조사에서 제도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안전한 식품 유통을 위한 영업자의 철저한 냉장 및 냉동시스템 운영을 1순위로 답변하였다.
- 중소형 동네마트의 경우, 슈퍼조합 등을 통해 영세한 동네마트의 경우 철저한 냉장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냉장실 덮개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식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소비자는 식품구입 후 소비기한 내에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 냉장 제품의 경우 0~10℃ 온도 기준을 벗어났거나 제품이 개봉된 채로 보관되었다면 해당 기간까지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다. 식품의 부패·변질에 따른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기한 시행과 함께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정부는 소비기한 참고 값을 신속히 제공하고, 소비기한 표시가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 식약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 약 2,000여개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하여 공개하고 있다.
- 식품업계는 소비자가 소비기한표시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충분한 인지가 될때까지는 소비기한을 다소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